

트럼프 지원받은 네타냐후 총선 승리

중동의 '스트롱맨'으로 통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70)가 9일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보수 강경 노선을 고수해 온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동 정세에 갈등 기류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승리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대 최장 집권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총선에서 득표율 29.2%를 얻어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전체 120석 중 35석을 확보했다. 이는 1996~1999년,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총리직을 맡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앞서 치른 4번의 선거 득표율을 모두 뛰어넘는 기록이다. 한때 출구조사에서 베니 간츠 전 군 참모총장(60)이 이끄는 중도정당연합 청백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표 결과 리쿠드당의 승리로 끝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각종 부패 스캔들로 정치적 입

지가 크게 흔들리자 "연립 정부를 해산하고 총선을 앞당겨 재신임을 묻겠다."면서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리쿠드당 당사에서 "다시 한 번 나를 믿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4년 동안 더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지난달에는 유럽연합(EU)과 중동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을 도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 과정에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에 이어 서안지구 내 정착촌도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중동 정세에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총기규제 법안 의회 통과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격 테러로 50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은 뉴질랜드가 반자동 무기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날 의원 120명 가운데 119명의 찬성으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군대식 반자동 총기와 공격용 소총이 금지된다. 일반 총기를 고성능 총기로 개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과 대응용 탄창도 모두 금지된다.

주요 농사 및 사냥에 사용되는, 최대 10발을 장전할 수 있는 22인치 라이플과 최대 5발을 장전할 수 있는 산탄총은 허용된다. 법안은 해충 방제, 수집, 가보, 기념품 용

도의 총기는 허용했다. 수집용일 경우 발사 장치를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 불법 총기를 소유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사용이 금지된 반자동 무기와 공격용 소총을 보유한 개인은 9월 말까지 총기를 반납해야 한다.

과거 뉴질랜드는 몇 차례 총기 규제법이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으나 모두 부결됐다. 1990년 총기 테러에 의해 1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총기 규제법이 제출됐으나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법안 발의에서 의회 통과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이번 규제법은 총기 테러가 발생한 날(3월15일)로부터 의회 통과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을 만큼 신속하게 처리됐다.

베트남서 한국 비자 신청 붐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비자 신청이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하노이 주재 한국영사부에만 하루 평균 2천~3천명이 한국 비자를 받으려고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는 신청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실정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베트남 대도시 주민에게 5년간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면서 비자신청이 급격히 늘었다.

하노이만 하더라도 올해 1월 9천여 명이 비자를 신청했다. 관광비자 신청이 6천 건으로 작년 1월보다 2천 건이나 늘었고, 복수비자 신청도 3천 건으로 집계됐다. 2월에도 관광비자 신청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100건 많은 3천600건으로 집계됐다. 복수비자 신청은 4천700건이나 됐다. 아직 3월 공식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자신청 건수는 갈수록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오는 4월 말이면 한국정부가 대도시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는 괴소문이 돌면서 서둘러 비자를 받으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 시민이 아니지만, 임시거주증을 가진 주민이 복수비자를 받아두려고 왔다 튀 신청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행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던 여행사들이 제때 비자를 받지 못해 관광상품을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대사관은 조만간 현지 여행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괴소문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40년 경력의 주인이 직접 수리함

부에나팍/플러튼/라하브라/애나하임

한미 자동차 바디/수리

Hanmi Auto Enterprise
Collision & Repair

저렴한 가격 / 정확한 수리

- 무료 방문 견적
- 자동차 수리시 Pick up & Delivery
- Towing & Rent Car 알선
- 보험 수리 전문
- 노련한 바디맨의 완벽한 수리
- 최신 머신에 의한 Color Match
- FREE ESTIMATE

〈미국내 많은 메이저 보험 클레임〉

Cell **714.851.7556** 4355 Artesia Ave. #D, Fullerton, CA 92833
714.680.9273 Dale + Artesia 플러튼 공항 뒤쪽(할주로)